

Monthly Webinar

조경, 왓츠 유어 네임?

1970년대 초, 한국 조경의 성립과 함께 landscape architecture의 번역어로 선택된 조경(造景)이라는 이름이 조경(학)의 목적, 대상, 영역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며 조경의 사회전문화적 역할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경이라는 이름이 조경의 범주를 제한하는 장애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것은 번역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랜스케이프 아키텍처(트)에 적합한 한국어로 조경(가)이 아닌 다른 번역어를 찾아야 하는가? 아니면 현재와 미래 조경(학)의 실천 영역과 학문 범주를 포괄할 수 있는 개명이 필요한 것인가? 한국 조경 50주년을 맞아 전문 직능(profession)과 학문 분과(discipline)의 명칭에 대한 신중한 토론의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사)한국조경학회 월간웹비나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14:00-16:00

Webinar access

ID 867 8491 7006

PW 606617

<https://us02web.zoom.us/j/86784917006?pwd=MHlxdW5KcERkOWYyWThOd3FobkJSZz09>

*진행 : 배정한 한국조경학회 학술부회장

14:00-14:10

개 회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조경진**

다시, 조경의 이름을 묻는다

서울대학교 교수 / 환경과조경 편집주간 **배정한**

잘 모르는 사람 M과의 대화

디자인 스튜디오 loci 대표 **박승진**

우리의 '造景'과 그들의 '조경'은 다르다

순천대학교 교수 **최정민**

14:10-15:00

발 제

'조경'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하버드대학교 GSD 교수 / 오피스박김 대표 **김정운**

내 이름은 알렉산더 라인하르트 폰 로엠그람 더 매그너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영민**

건축의 경계에서 조경을 묻다

월간 SPACE 편집장 **김정은**

조경이라는 이름의 학과 업의 이인삼각 경기

부산대학교 교수 **이유직**

15:00-15:50

질의응답 및 토론

16:00

마무리 및 폐회